

Japan Weekly Digest

2012. 11. 24 ~ 2012. 11. 30

① 주간 경제 초점

-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 사업통합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- 일본의 그린정책 요강 발표
- 일본의 대형금융기관, 중국리스크에 대응한 동남아진출기금 창설

③ 일본기업의 협력 동향

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

한국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① 주간 경제 초점 :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 사업통합

□ 2014년 통합 신규법인 발족

-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가 29일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전력시스템사업을 통합한다고 발표. 2014년 1월 신설법인을 설립,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신흥국에서 수주 확대를 겨냥
 - 통합되는 신설법인에 미쓰비시중공업이 65%를 출자하여 연결자회사로 하며, 히타치의 출자비율은 35%
 - 통합대상은 가스터빈이나 보일러 등 화력발전설비 외에 이산화탄소나 유해물질을 억제하는 장치, 지역발전, 연료전지사업 등으로 매출액은 1조 1,000억엔 규모임
- 원자력발전분야는 이번 통합에서 보류되었는데 히타치는 미국 GE와 사업통합, 미쓰비시중공업은 프랑스 알레바와 제휴하고 있기 때문임

□ 글로벌경쟁에 대한 위기감이 통합의 배경

- 일본의 인프라사업을 리드해 온 兩社가 그룹 간의 고정관념을 깬 통합 형태로 일본연합을 구축하게 된 배경은, 원전사고와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경쟁에 대한 위기감임
- 일본의 중전메이커들은 그동안 국내 전력회사들로부터의 안정적인 수주에 안주해왔음
 - 그 결과 2011년도 전력회사의 설비투자액은 약 2조엔. 피크였던 1993년도에 비하여 절반 이하로 떨어짐
 - 원전사고를 계기로 비효율적인 전력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활발해져 일본 국내의존형의 사업모델은 한계를 맞고 있음
- 해외 경쟁 환경도 심각해지고 있으며 전력이나 물 등 인프라정비는 성장시장으로 인구증가를 지탱해주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4,000조엔 이상의 투자가 필요함
 - 리먼 쇼크 이후 자국시장이 부진한 구미기업들이 수요가 많은 신흥국시장에 물려들고 있음

- 인프라수출을 전략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중국이나 한국기업들도 가세하여, 2010년까지 일본기업의 인프라설비수주액은 거의 담보상태이나 중국과 한국기업들은 각각 4배로 증가

□ 다른 분야에서도 兩社간 연대 심화

- 兩社는 원자력발전이나 도시교통시스템 분야에서도 사업통합을 시야에 두고 연대를 심화시킬 구상임
- 전력 외에도 저상식노면전차 등 도시교통시스템 분야에서도 보완관계가 있어, 사업통합도 검토 중
-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는 2000년에 제철기계부문의 통합에 합의, 2011년에는 수력발전기사업을 통합한 바 있음. 또 스마트시티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사회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쌓아옴
-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는 원자력기술이나 기초연구 등 동경전력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처리 분야에서 협력한 실적이 있음
- 히타치는 구미의 중전메이커들에 비하여 IT나 제어기술에 강함
- 히타치 나카니시 사장은 일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“미쓰비시중공업의 노하우와 히타치의 IT기반을 합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전망이 열릴 것이다”고 자신감을 보임

□ 이제까지와는 다른 집약화

- 일본의 제조업은 반도체분야에서 집약화를 시도해왔으나 경쟁력을 상실한 주변사업을 외부로 방출하거나 도려내는 성격이 농후했음
- 그러나 이번 통합은 兩社 모두 가스터빈 등의 발전설비를 핵심 사업으로 설정, 서로 힘을 합쳐 세계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통합임
- 신흥국을 중심으로 사회인프라 수요가 앞으로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, 과당경쟁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기업들의 사업규모나 수익력은 세계 라이벌기업에게 뒤지고 있어,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결단으로 평가되고 있음

- 보수적이고 움직임이 늦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양사의 이번 결단은 많은 일본 기업들에게 자극제가 되기에 충분할 것으로 기대

□ 업계재편의 마중물

-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가 전력설비사업의 통합에 합의함으로써 중전 업계의 재편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
- 통합 신설법인과 라이벌관계인 도시바만이 아니고 히타치와 관계가 깊은 미국GE 등의 동향이 앞으로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임
- 히타치에 의하면 GE와의 경합은 불가피해 졌다고 함. 히타치는 GE와 원자력 발전설비분야에서 사업을 통합하고 있으며 화력발전분야에서는 핵심설비인 가스터빈을 조달해 줌
- 대형가스터빈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는 환경 친화적이라 향후 최대 성장예상 분야이긴 한데, 신규회사는 GE에 대항할 수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의 가스터빈이 있기 때문에 GE로부터 조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됨
- 한편, 미쓰비시중공업은 계열관계인 미쓰비시전기에서 발전기 등을 조달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히타치의 강점분야로 신설법인의 주력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쓰비시전기와의 관계도 변할 것으로 보임
- 이제까지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고 있던 GE와 미쓰비시전기는 신설법인의 탄생으로 치열한 경쟁에 직면, 새로운 합종연횡에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임
- 앞으로 주목되는 것이 미쓰비시중공업, 히타치와 맞먹는 일본의 3대 중전메이커의 하나인 도시바의 움직임
- 도시바는 화력발전설비분야에서 GE와의 관계가 깊으며, 최근 중부전력으로부터 대형 가스화력발전설비를 공동으로 수주한 바 있음
- 미쓰비시중공업-히타치연합의 탄생에 의해 도시바와 GE의 관계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도 있음

② 산업통상전략

□ 일본의 그린정책 요강

- 일본정부의 「그린정책요강」은 에너지절약 분야에서 태양광 패널이나 열효율이 높은 건축자재에 보조금을 지급, 2020년까지 신축주택의 에너지소비를 제로로 한다는 것이 골자임
- 그린정책은 재생가능에너지, 에너지절약, 축전지 등 5개 분야를 중점 시책으로 지정
 - 주택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와 소비하는 에너지를 상쇄시킴으로써 「순 제로」를 목표로 한 것은 가정부문의 기술혁신 촉진을 겨냥한 것임
 - 가정의 사용전력을 자동적으로 절약하는 「HEMS시스템(가정용에너지관리시스템)」을 2030년까지 전 세대에 도입할 계획임
-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실험중인 부체식영상풍력을 2015년부터 가동하고, 홋카이도, 토후구 등 풍력발전에 적합한 지역에 약 3,000억엔을 투자하여 송전망 사용을 2018년까지 개시할 예정임
- 일본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지열발전은 일본 국내 보급뿐만 아니라, 인프라 수출전략에도 활용하여 세계시장점유율을 높일 계획
 - 에너지절약 분야에서는 가정용연료전지의 보급대수를 2030년까지 530만대로 계획
- 이들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2030년 시점의 에너지소비량을 2010년 대비 20%를 억제시킨다는 목표
- 또한 자원 확보도 시야에 두고 차세대 자동차용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자석을 2020년까지 민·관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

□ 일본의 대형금융기관, 중국리스크에 대응한 동남아진출기금 창설

- 미즈호금융그룹(FG)과 국제협력은행(JBIC)이 ASEAN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약 160억엔의 펀드를 창설
 - 중국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, ASEAN이 중국에 이어 진출대상지역으로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배경
 - 일본계 기업과 현지기업과의 합작기업 설립 등을 지원하고 진출 후에도 사업확대를 지원하게 됨
- 펀드는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이 싱가포르에 설립, 약 60%인 100억엔을 출자. JBIC는 수십억엔을 출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는 외에, 거래처 지원에 의욕적인 지방은행도 참여시킬 계획인데 ASEAN의 정부계 금융기관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음
- 지원대상은 태국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 등 ASEAN에서 사업하고 있는 기업임
 - 주로 미즈호은행의 거래기업이 현지기업과 공동출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일부를 투자함. 펀드는 우선 현지기업에 먼저 출자한 후에, 일본계 기업과의 자본·업무제휴의 받침대로 하는 방식도 검토 중
- 1개 기업당 자금지원액은 5억엔~15억엔을 상정하고 있는데, 주식의 50%이상은 취득하지 못하고 소액주주로 경영에 참여
 - 연간 2~3건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임
- 펀드에 의한 출자와는 별도로 미즈호은행과 지방은행이 지원 대상기업에 운전자금이나 설비자금 등을 융자, 경영을 지원하기도 함
 - 장래에는 일본기업과 현지기업과의 지분매각, 추가 펀드설립도 검토 중
- 관서지방의 유력 지방은행이 거래처를 중심으로 한 약 2,000개사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태국, 인도네시아, 베트남 등 3개국에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 45%에 이름

③ 일본기업의 협력동향*

일본기업	발표일자	업종	대상국가/기업	사업형태/내용
일본화약	2012.11.25	자동차용 화약	멕시코	직접투자/연구개발거점 설립, 기자재 등의 투자규모, 5억엔
저크스	2012.11.26	판매금융	인도네시아/사나알사파이낸스	자본제휴/주식의 40%취득, 출자규모 약 15억엔
메이코	2012.11.26	전자부품	베트남	직접투자/프린트기판의 생산 능력 2배 증강, 투자규모 40억엔~50억엔
쿠보타	2012.11.27	산업용 디젤 엔진	중국	직접투자/생산자회사 설립, 투자규모 68억엔
히타치제작소	2012.11.27	원자력 발전 사업	영국/호라이즌 뉴크리어파워	직접투자/기업매수, 매수가액 892억엔
혼다, 토요타	2012.11.27	자동차	한국	직접투자/미국에서 생산, 한국에 수출
신일철주금 외	2012.11.28	철강	인도	기술협력/에너지절약기술판매
미쯔비시상사	2012.11.30	화력발전	칠레/AEA해넬	자본제휴/공동으로 발전소 건설, 출자비율 40%, 출자금액 150억엔
사토홀딩스	2012.11.30	바코드프린터	베트남	직접투자/판매거점 신설
아즈비르	2012.11.30	건조·멸균장치	스페인	직접투자/기업매수, 주식 80% 취득
닛산자동차	2012.11.30	자동차	중국/칭화대학 연구소	포괄제휴/공동연구
디이와하우스	2012.11.30	공업단지개발	인도네시아/아르고마눈갈란드디벨로프먼트	자본제휴/공동개발, 출자금액 50억엔

*자료: 일본경제신문기사에서 정리

4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(1) 『글로벌제휴에 의한 공장네트워크 구축과 기업경쟁력』 CIO Online, 11월 27일

*출처:<http://www.ciojp.com/sp/t/13187>

(2) 『제 62회 일본통계연감』 총무성통계국, 11월28일

*출처:<http://www.stat.go.jp/data/nenkan/index.htm>

(3) 『일본경제 재생의 처방전』 NTT데이터, 11월28일

*출처:http://e-public.nttdata.co.jp/topics_detail4/contents_type=5&id=792

(4) 『RCEP vs TPP』 후지츠종합연구소, 11월29일

*출처:<http://jp.fujitsu.com/group/fri/column/opinion/201211/2012-11-5.html>

(5) 『아시아시장에서 일본기업의 商機 모색』, 나가사키경제연구소, 11월29일

*출처:http://www.nagasaki-keizai.co.jp/pdfs/201212_2.pdf

(6) 『발전시스템산업의 해외전략』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, 11월30일

*출처:http://www.mizuhocbk.co.jp/fin_info/industry/sangyou/pdf/mif_116.pdf